

사진으로 말하는 꿈: 포토보이스를 통한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 탐색*

김유빈** · 김서현*** · 손은숙**** · 김영근*****

Ⅰ 알기 쉬운 개요

최근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의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이주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미래를 꿈꾸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 제도적 경계 속에서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을 이들의 시선에서 이해하고자 포토보이스 방법을 활용하였다. 만 13~18세 고려인 청소년 5명은 '사진으로 말하는 나의 꿈'을 주제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에 담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설명하는 집단 활동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 결과,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은 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언어 장벽과 시간 압박, 막막함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어지는 여정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가족과 고려인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이들이 좌절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를 어려움이나 결핍의 관점이 아닌, 이들이 지닌 자원과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사진을 활용한 포토보이스가 언어적 제약이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 * 본 논문은 인제대학교 First 3.0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석사, 한국정서변화와성장연구소 연구원, 제1저자
-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석사, 한국정서변화와성장연구소 연구원
- ****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이사장
-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부교수, 한국정서변화와성장연구소 소장, 교신저자, ykkim@inje.ac.kr

투 고 일 / 2025. 9. 7.
심 사 일 / 2025. 12. 9.
심사완료일 / 2025. 12. 18.

Ⅱ 초록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하여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을 탐색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5명으로, 총 3회기의 포토보이스 활동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사진으로 말하는 나의 꿈'을 주제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뒤, 집단 회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만 13세부터 18세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특성을 지녔다. 포토보이스 활동에서 수집된 사진과 발표 내용, 녹음 파일을 토대로 이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은 '꿈: 내 인생의 이정표', '어려움: 꿈을 가로막는 장벽들', '빛: 그럼에도 나아가는 힘'이라는 3가지 상위주제와 9가지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첫째, 꿈은 단순한 직업적 목표를 넘어 자아 정체감을 확인하고 관계를 확장하는 장치로 나타났다. 둘째, 언어 장벽, 시간 압박, 현실적인 어려움과 같은 다층적 어려움이 진로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셋째, 고려인 청소년이 경험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고려인 친구, 자기 자신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주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려인의 진로 경험이 어려움과 부적응의 관점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관계·자기 효능감이라는 자원을 바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포토보이스 기법은 언어적 제약이 있는 고려인 청소년의 경험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을 심층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이들의 진로 탐색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진로 특화 한국어 교육, 자기표현 기반 상담·교육 프로그램, 동족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계 기반 진로 지원 체계, 그리고 제도적 보호체계의 확대가 진로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고려인 청소년을 단일한 '다문화 청소년' 범주로 환원하지 않고, 이들의 중층적 정체성과 진로 맥락을 반영한 상담·교육적 관점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고려인 청소년, 사진, 포토보이스, 진로 경험

I. 서 론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유형의 이주배경 청소년이 주목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24)에 따르면, 국내 거주 이주배경 청소년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의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대 이후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확대 시행되면서 부모와 함께 입국하게 된 아동·청소년의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23). 이처럼 고려인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문화적 경계에서 정체성 혼란과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2025 전반기 고려인청소년교육협력협회 포럼>에서도 한국어 능력 부족,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한 고려인 청소년의 어려움이 중요하게 논의되었으며, 이들이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박현수, 2025).

고려인은 과거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국인의 후손으로 현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집단을 의미한다(최영진, 2012). 이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근거하여 외국국적동포로 정의되고 있으며, 가족 재결합이 가능하기에 배우자, 자녀 및 친인척을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다(남부현, 김정준, 2018). 고려인 청소년은 러시아어 문화권의 고려인 동포 가정에서 태어나고 융합문화세계에서 성장하다 한국 사회로 이주하게 된 9~24세의 청소년을 말한다(박미정, 2015). 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자녀 세대의 영구적 정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신난희, 소학섭, 2025)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하지만 출신국에서의 생활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과 충돌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더불어 드러나는 외모의 차이로 인한 혼란 및 차별(오예카테리나, 2021), 출신국과는 다른 언어 사용 및 문화 차이로 인해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기 쉬우며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차별과 오해로 이어져 결국 여러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정민상, 김영근, 2025).

이러한 상황은 고려인 청소년이 단순히 문화 적응의 문제를 넘어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조율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적이다. 고려인 청소년은 다문화 가정 부모 동반 자녀이자 중도입국 청소년이며 외국국적동포이자 다문화 학생이라는 다층적인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남부현, 김지나,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층적 정체성 또한 제도적으로 명확히 포착되지 못하고 있다. 고려인 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남부현, 김지나, 2017; 이남주, 김민, 2017; 조은희,

오성배, 2017; 최경란, 홍지영, 2018). 즉, 고려인 청소년의 다층적인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불분명하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한계에 국한되지 않고 고려인 청소년 적응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현재까지의 논의는 주로 언어, 문화, 제도 적응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인적 차원인 이들의 적응 과정 및 주체성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려인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장벽을 마주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고려인 청소년은 원가정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성장했지만, 성장 도중 한국 사회로 이주하며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긴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또래와의 관계, 학교생활, 진로 탐색 등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아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Erikson, 1968). 이처럼 고려인 청소년은 단순한 언어 습득이나 문화 적응을 넘어, 복합적인 정체성 형성과 문화 간 조화를 요구받는 이주배경 청소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려인 청소년은 학교 사회 내에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학업 성취도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경, 2013). 또한, 한국어 역량 부족으로 인해 수업 이해 및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교과 학습과 인문 교양 전반에서 지체와 결손이 누적되고 있으며(남부현, 박미숙, 2022), 진로 상담이나 적성 검사를 받을 기회가 부족해, 적극적인 진로 설계보다 학교 생활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김지나, 2016). 더불어, 이들은 진로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 전략을 갖지 못한 채, 부모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박현숙, 2023; 김지나, 2016). 특히, 부모 세대는 불안정한 이주 배경과 재외동포비자 제도에 따른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자녀에게 보다 높은 학력을 요구하기도 하며, 전문직 직업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류예진 외, 2025). 이러한 부모의 요구는 고려인 청소년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보다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게 할 수 있다(남부현, 김지나,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꿈꾸는 미래의 장소는 여전히 한국 사회라는 점에서,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과 인식, 그들의 실제 필요를 보다 정교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로 진입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이 어떤 기대를 품고 한국 사회로 이주했으며, 이후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어떤 진로 전망을 형성해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고려인 청소년들이 품고 있는 진로에 대한 기대와 고민, 그리고 학교 및 사회에서 경험하는 현실을 그들의 주관적인 시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문제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이곳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어떤 진로를 꿈꾸며 또 그 진로를 준비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 참여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을 활용하였다. 한국 거주 기간이 길지 않아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려인 청소년의 언어적 제약을 고려할 때, 포토보이스는 사진을 매개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다. 아직까지 상담 분야에서 포토보이스는 다소 생소한 연구방법이지만, 일반적인 질적 연구방법과 다르게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자는 알기 어려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찾아낼 수 있다(조미형, 이성욱, 문예술, 김수현, 2024). 국외에서도 이민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토보이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Vaughn, Rojas-Guylar & Howell, 2008; Lighfoot et al., 2019), 국내에서는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이재희, 김기현, 라미영, 2014; 조미형, 이성욱, 문예술, 김수현, 2024), 이주배경 청소년(박은혜, 심혜선, 마담마, 2018)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경험을 탐색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포토보이스 활동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주도적 토의를 통해 도출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청소년에게 진로 경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둘째, 고려인 청소년이 진로를 형성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을 촉진하거나 지지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고려인

고려인은 19세기 후반 조선 말기 농업 기반의 붕괴, 식량난 및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후손을 의미한다. 18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주는 1937년 스탈린 정권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약 17만 명의 고려인이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집단 이주하면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적 토대에 대

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김경학, 2018). 한국 정부는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 동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고용 불안정,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남혜경, 이미정, 2016).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인은 한국적 정체성과 이주 국가의 언어·문화를 동시에 경험해 온 다문화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2. 청소년

청소년기는 단순히 생물학적 성장 단계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준비기’라기보다는 독자적인 발달 단계로 인식되며, Arnett(2000)은 청소년기를 포함한 초기 성인기를 ‘발달적 전환기(emerging adulthood)’로 보며 불확실성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로 설명하였다. 청소년의 개념은 학문적 논의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정의에서도 다양하게 규정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는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청소년을 10세에서 19세로 정의하고 있고 UN에선 15세에서 24세를 청소년으로 간주한다(United Nations, 2019). 이처럼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이는 정책적 지원과 권리 보장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입시와 학업 성취 중심의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는 진로 선택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진로에 대해 자기 탐색을 위한 자율적 선택의 과정으로 경험하기 보다는 성적, 경제적 조건, 사회적 기대에 의해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김현주, 조혜영, 2017). 또한, 또래 관계와 사회적 인정 욕구가 강해지면서, 청소년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도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송진영, 배미경, 2019). 특히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이 경험하는 발달 과업과 더불어 언어적 장벽, 사회적 낙인, 문화적 이중성이라는 추가적 어려움에 직면한다(홍나미, 박현정, 2017).

3.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

2012년부터 국내 이주 배경 청소년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류예진, 이원형, 최하림, 연구진, 김민선, 백경민, 2025). 또한, 그들의 인종 및 출신국 분포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의 경험을 보편적인 하나의 문제로 통합하거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각 집단별로 일반적인 이주배경 청소년이 겪는 문제와 어떤 점이

다른지 또 같은 점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2025년도 6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를 보면 고려인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는 재외동포(F-4)비자와 자녀동반(F-1)비자의 경우 각각 46,939명 그리고 2,837명으로 2023년 6월 기준 각 42,262명, 1,525명(법무부, 2023)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를 따라 출신국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오게 되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꾸준한 연구 역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은 이중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장하며 정체성 형성에 독특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어 능력 부족, 학업 격차, 경제적 제약과 같은 어려움은 결국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겪는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편견 또는 차별 역시 학교 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쳐 각자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계란, 이지민, 2010). 그럼에도 고려인 청소년은 다문화적 배경을 통해 글로벌한 정체성과 적응 가능성을 형성하고 그것이 결국 진로 탐색 과정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인 집단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의 진로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그들의 특수한 경험을 반영한 상담 및 교육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4. 청소년의 진로

‘진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삶에서 직업 발달을 포함한 전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큰 발달과업 중 하나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내고 본인의 인생을 계획하는 진로 발달과 진로 개발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조윤정, 황소리, 오민아, 2018).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 역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중·고등학교 상담 현장에서 진로와 관련된 상담은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계열 선택 등과 관련한 고민을 호소하게 된다(문지은, 이지혜, 이상민, 2015). 이들은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때 단순히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만을 맞춰 결정하기보다,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춰 결정하기도 하고(윤영란, 2009) 때론 부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원치 않는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김민선, 2018). 그러나, 타인 혹은 주변 사회에 맞춰진 진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율적인 진로 결정이 중요한 만큼(김병표, 박현주, 2021) 그들에게 제공되는 진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도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주혜민, 2023).

5. 포토보이스

포토보이스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인 사진을 통해 특히 소외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Wang & Burris, 1997). 포토보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들이 주제 맞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 간의 토의 및 토론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오영범, 202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포토보이스는 참여적 행동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참여적 행동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사회적 변화를 위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Bogdan & Biklen, 2007; Kemmis & McTaggart, 2005; Whyte, Greenwood & Lazes, 1991) 특히, 연구 대상자가 단순한 피험자가 아닌,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으로 강조된다(Whyte et al., 1991).

최근 포토보이스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연구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연구들은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통합 과정과 그 속에서의 어려움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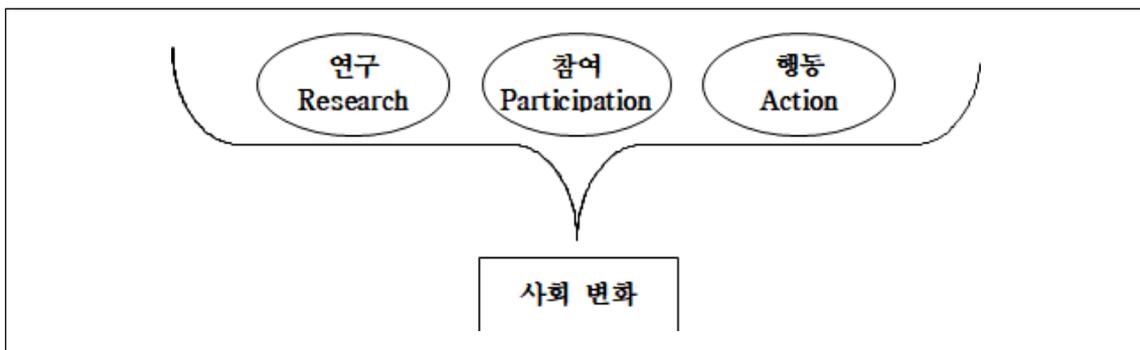


그림 1. 참여적 행동 연구의 네 가지 구성요소(Liebenberg, 2018)

다음 그림은 참여적 행동 연구의 주요 구성 요소를 제시한 것이다(Liebenberg, 2018). 사진을 통한 면담은 여러 효과를 지니는데, 그중 첫째는 사진 그 자체가 참여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면담을 활성화할 수 있다. 둘째, 언어만 사용하는 면담에 비해 뇌 기능 작용을 더 촉진 시키기에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이다(Wang & Burris, 1997). 셋째,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참여자가 답변하는 구조가 아닌 사진이 활용되기에 연구참여자의 피로도를 해소할 수 있다. 넷째, 핵심 질문에 초점이 되어 면담이 진행되어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통해 연구자와 참여자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모집 및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5년 1월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1개의 기관을 통해 모집하였다. 해당 기관은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진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연구 목적과 부합하며 참여자 모집과 의사소통 지원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실제로 고려인 청소년은 언어적·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기관의 한국어 수업 담당자에게 모집 안내문을 제공하고,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 및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추천 요청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고려인 청소년에게 연구진이 연구설명문 및 서면동의서를 번역하여 제공하였으며, 통역사와 함께 연구 목적과 윤리적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고려인 청소년에 한하여 연구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려인 청소년 5명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표 1). 연구를 참여했을 당시에 만 13세 1명, 14세 2명, 16세 1명, 17세 1명이며, 출신국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었으며 여자 5명이었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연구참여자	성별	만 나이	출신국	거주기간	가족
A	여	17	우크라이나	1년 10개월	부, 모, 언니, 쌍둥이
B	여	14	카자흐스탄	2년 7개월	부, 모, 오빠, 남동생
C	여	16	우즈베키스탄	1년 9개월	부, 모, 할머니, 언니
D	여	14	카자흐스탄	2년 7개월	부, 모, 남동생
E	여	13	카자흐스탄	1년 11개월	부, 모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5년 1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포토보이스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이 아닌 포토보이스 방법을 적용한 연구 활동이며, 참여자들이 포토보이스의 목적과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진으로 말하는 나의

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활동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참여자 간 자기소개,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참여 방법과 보상, 사진 촬영 방법, 초상권 및 저작권, 연구 윤리 등을 교육하였으며, 모든 참여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존에 수강 중이던 한국어 수업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회기별 주제 및 공지 전달을 위하여 온라인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사진으로 말하는 나의 꿈〉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한 달간 매주 1회, 총 3회기 집단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회기에서는 참여자들이 미리 촬영해온 사진을 공유하고, PHOTO 질문(Hussey, 2006)에 따라 각자의 답변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회기별 주제는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진로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경험한 주제는 무엇인지’를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 스스로 중요하게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3회기의 주제를 합의하였다. 최종 회기별 주제는 ‘나의 꿈’, ‘나의 꿈과 관련된 어려움/힘든 점’, ‘나의 꿈에 도움이 되는 점’이었다. 참여자들은 회기마다 최소 3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과제로 제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자들이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2025년 4월 5일 소규모 전시회를 열었다. 본 전시회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진로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자들은 직접 자신의 사진을 소개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고, 전시회에는 참여자들의 고려인 친구, 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으나, 일상적인 한국어 구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 소통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모든 공지, 안내 자료 및 활동지는 한국어와 참여자의 모국어를 병기하여 제공하였다. 둘째, 다음 회기 주제 및 활동 설명은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사전 전달되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PHOTO 질문(Hussey, 2006)의 답변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작성해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고려인 출신의 통역 선생님이 회기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였다. 연구진 또한 사진 촬영 및 질문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사진과 응답을 제시하였다. 집단면담 시에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언어적 한계를 넘어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활용하였으며, 참여자의 반응,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도 면밀히 관찰하였다. 각 회기 면담은 전 과정이 녹음되었고, 이후 전사하여 통역 선생님과 함께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함께 논의하였다. 더불어 참여자들과의 의미 공유를 위해 채팅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참여자 스스로 질문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진으로 말하는 나의 꿈〉 총 3회 활동을 통해 사진, 녹음 파일, 녹취록을 수집하였으며 Braun과 Clarke(2006)가 제안한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

6단계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사진,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회기별 주제를 기준으로 1차 코딩을 진행한 뒤, 세 회기의 자료를 통합하여 공통적 주제와 대비되는 의미를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에 담긴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각 회기에서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공통적 경험과 차이를 토의하였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주제와 핵심 내용을 함께 합의해 나갔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상호 대화를 분석의 주요 자료로 포함시켜, 집단적 논의 과정에서 생성된 개념과 표현이 주제 도출에 반영되도록 연구진 간에 교차검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사진, 음성 녹음 파일, 전사된 텍스트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읽고 살펴보며 자료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2단계에서는 자료 속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패턴, 핵심 단어, 의미 단위들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코딩을 하였다. 이때 분석 단위는 참여자의 발화문, 활동지 응답, 사진 설명,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연구자 메모 등 ‘의미 있는 발화 단위(meaning unit)’로 설정하였다. 1차 코딩은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각각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 단위에 코드를 부여하였다. 이후 연구자 간 코딩 결과를 비교하여 불일치 항목에 대해 논의·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코드 체계를 확정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언어적 특성(모국어 혼용, 번역 과정의 의미 손실 등)을 고려하여 통역 선생님과 함께 코딩 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적 맥락이 반영되도록 수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생성된 코드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잠재적인 주제를 도출하고, 주제별로 자료를 조직하였다. 4단계에서는 도출된 주제 간의 관계성과 주제 내 일관성을 재검토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려 하였다. 5단계에서는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를 확정하고, 각 주제에 적절한 명명을 하였다. 6단계에서는 각 주제에 부합하는 사진과 참여자의 이야기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제별 분석내용을 서술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Padgett(2008)이 제시한 네 가지 전략, 즉 관계 형성(prolonged engagement), 다원화 전략(triangulation), 연구참여자를 통한 검토(member checking),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peer support group)를 적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팀은 연구자들과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2025년 1월 전부터 사전 교류를 지속해왔으며, 첫 회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진행하고, 온라인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참여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다원화 전략의 일환으로 참여자의 사진, 활동지, 회기별 녹음 파일, 연구자 필기 노트, 온라인 채팅 대화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팀은 다년간 고려인 청소년 관련 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논의하는 등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제적 관점을 지닌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팀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적 논의를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넷째, 마지막 회기와 전시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참여자에게 공유하고 재확인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전 과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회기 자료(PPT, 활동지, 안내문 등)는 모국어와 한국어를 병기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모든 과정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또한, 모든 자료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였고,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고지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려인 청소년이 총 3회기의 <사진으로 말하는 나의 꿈> 포토보이스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내용을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상위주제는 ‘꿈: 내 인생의 이정표’, ‘어려움: 꿈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들’, ‘빛: 그림에도 나아가는 힘’ 등 3가지로 구분되었으며 9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표 2).

표 2
포토보이스 분석 결과

상위주제	하위주제
꿈: 내 인생의 이정표	나를 보여주는 꿈
	나의 꿈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려움: 꿈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들	넘어야 할 걸림돌: 낯선 한국어
	나를 쫓아오는 시갯바늘과 조급함
	끝이 보이지 않아 느끼는 막막함과 무력감
빛: 그림에도 나아가는 힘	영감을 주는 감사한 존재: 가족과 고려인 친구들
	언제나 내 편인 나
	“어려움 없이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못 잡아 올린다.”
	꿈을 향한 열망과 자기표현의 회복

1. 꿈: 내 인생의 이정표

고려인 청소년에게 진로는 단순한 미래의 목표나 직업 선택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관계를 확장하는 중요한 '삶을 이끄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 참여 초기부터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에 깊이 반응했으며, 자신의 관심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관계 속에서 존중받는다고 느꼈다.¹⁾ 이러한 경험은 이들이 진로를 꿈꾸고 상상하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1) 나를 보여주는 꿈

고려인 청소년에게 꿈은 단순한 진로 목표를 넘어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고 확인받는 표현의 장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기술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바랐다. 이러한 자기표현은 단순한 흥미의 발현이 아니라 이주라는 단절 경험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통로였다. 특히, 이들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감정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비언어적 활동인 운동, 그림,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었보였다. 즉, 특히, 중도입국으로 인해 학업 경로가 끊기거나 축소된 상황에서 이들은 비언어적 활동을 통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래의 직업적 가능성과 연결하고 있었다.



이 사진은 농구와 나라고 부를 거다. 나의 꿈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나는 농구를 좋아하고 스포츠에 대한 나의 사랑을 알리고 싶다. (중략) 인생의 일부인 농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다. (참여자 D)

그림 2. 농구와 나

나아가, 이러한 표현 속에서, 참여자들은 서로의 작품과 이야기를 존중하며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활동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전원이 공통적으로 모든

1) 오리엔테이션 회기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통역 선생님을 통해 자기들의 진로를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작품을 존중하는 인식²⁾을 보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각자가 지닌 상처와 배경을 이해하려는 공감 기반의 존중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고려인 청소년에게 꿈은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호적 자기표현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2) 나의 꿈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진로는 가족·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사회적 매개체였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관계가 많지 않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주변의 고려인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특히 소중하고 여기고 각별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진로 경험과 관련하여,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이미 형성된 관계를 유지·강화하는 사회적 매개체로서 진로 활동이 기능함을 보여준다. 참여자 B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매니큐어를 만들 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것을 만들 때 느끼는 기쁨에 관한 사진이라고 말하며, 진로 활동을 통해 기존의 가족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를 표현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참여자 A 또한 이와 유사하게, 자신이 만든 보석 십자수 작품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제 엄마를 위해 해드린 매니큐어 사진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것 만들 때 느끼는 기쁨에 관한 사진이다. (참여자 B)

그림 3. 엄마를 위한 매니큐어

또한 참여자 D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인상적인 순간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 진입 과정에서 기존 고려인 공동체와의 연결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 관계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중도입국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기존 사회적 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2) 연구참여자들은 서로의 관심사와 꿈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각자가 공유한 사진과 진로를 향한 마음이 ‘그 자체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표현하였다.



비행기를 처음 탄 건 나에게 매우 인상적인 일이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이것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제가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었다. (참여자 D)

그림 4. 인생 첫 비행기

이처럼 고령인 청소년들은 이주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언어·문화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진로 경험을 통해 이미 형성된 관계를 돌보고 강화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 간의 연결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의미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진로 경험이 사회적·정서적 맥락 속에서 의미 있게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2. 어려움: 꿈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들

1) 넘어야 할 걸림돌: 낮은 한국어

연구참여자들에게 꿈은 분명한 목표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벽을 마주해야 했다. 이들의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언어 장벽, 현실적 제약, 시간 압박 및 막막함 등의 장벽들이 경험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노력 부족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환경적·정서적 요인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특히 언어 장벽은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실력은 진로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높은 허들’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학습 과제가 아니라 심리적 긴장과 사회적 단절을 동반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하였다.



그림 5.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

나는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잘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참여자 A)

한국어에 대한 지식은 미래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성들에게도 아름다운 매니큐어를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 (참여자 B)

저는 미래의 직업을 위해 한국어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어를 잘 배우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참여자 E)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또래 관계 및 가족들과의 시간이 잦아 환경에서 학습 속도가 더뎠다고 보고하였다³⁾. 이는 출신국 언어 사용에 회의적이고 한국어 중심의 태도를 보이는 결혼 이민을 목적으로 한 일반 다문화가정(송영호, 최영미, 2019; 임동선 외, 2021)과 차이점을 보였다. 즉,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모국어 유지와 동족 네트워크 내 교류가 자연스럽게 강화되면서 한국어 노출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의 긴장과 불안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심화시켰다. 결국, 한국어는 이들에게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진로 진입의 문’을 여는 열쇠로 인식되고 있었다.

2) 나를 쫓아오는 시곗바늘과 조급함

연구참여자들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는 조급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시간은 한국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재촉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시계 사진을 통해 이러한 압박 속에서 느낀 조급함, 피로, 긴장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은 곧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을 자극했고, 이는 자신이 한국 사회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맞닿아 있었다. 이처럼 고려인 청소년은 늦은 입국으로 인해 또래 한국인 청소년에 비해 진로 준비의 출발선이 늦었다고 인식하며, 단기간에 역량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특수한 시간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급하다는 느낌...? 빨리 한국어를 배우고 빨리 내 꿈을 이루어야 하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다. 미래의 꿈을 볼 때 급하다는 느낌이 든다. (참여자 B)

사진은 시계를 찍어보았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건 시간 부족, 피로, 결의 등입니다. 저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참여자 C)

그림 6. 늘 부족한 시간

3) 통역 선생님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고려인 또래와 함께 지내며 한국인과의 교류가 적어 일상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를 위해 한국어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서툰 한국어를 쓰는 것이 부끄럽고 어렵게 느껴져 학습과 사용을 더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3) 끝이 보이지 않아 느끼는 막막함과 무력감

언어적·환경적 제약 속에서 진로를 준비하던 참여자들은 노력에 비해 성취가 더디게 느껴질 때 깊은 막막함과 무력감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E의 경우, ‘망가지거나 찢어진 작품’과 같은 사진을 통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과정에서 느낀 좌절과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진을 찍으면서 느낀 점은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는데 너무 어려워서 끝이 없다고 느꼈다 ... 그래서 미래의 꿈을 생각하면 감정이 복잡하다. (참여자 A)
영감의 부족으로 망가지고 찢어진 작품이다. 영감이 없을 때마다 어렵고 막막하다. (참여자 E)

그림 7. 망가지고 찢어진 작품

이처럼 참여자들에게 노력해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의 정체감으로 이어졌고, 이후 무력감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진로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서적 부담과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빛: 그림에도 나아가는 힘

1) 영감을 주는 감사한 존재: 가족과 고려인 친구들

참여자들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가갈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버팀목에는 그들의 가족과 고려인 친구들이 있었다.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가 어떤 의미인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며,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어(정상우, 이원선, 2022; 전경숙, 2017) 가족과 동족 공동체가 사실상 유일한 심리·정보 자원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 경험을 공유하는 가족과 친구들은 단순한 지지 체계를 넘어 참여자들의 진로 선택을 지속하게 하는 핵심 동기 요인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의 존재를 통해 ‘내가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고, 이는 고립감과 불안감을 완화하며 진로 목표를 더 구체화하도록 도왔다.



그림 8. 사랑하고 감사한 가족과 친구들

사진 속에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를 준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자 A)

제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있고 나를 지지하고 칭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건 나의 엄마라고 말하고 싶다. (참여자 B)

이처럼 가족과 친구는 진로를 향한 열망의 ‘출발점’으로 기능했다. 이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관계 속에서 동기를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를 통해 진로 적응을 지속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과 청소년들의 자신감 증진을 위해선 비단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보내는 지지와 긍정적 메시지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언제나 내 편인 나

주변 관계의 지지와 더불어,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존재는 다름 아닌 참여자 그들이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통해 낯선 환경 속의 불안과 제한된 기회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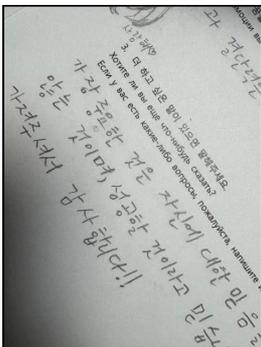


그림 9. 나에게 대한 믿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난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참여자 C)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항상 어떤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 내 꿈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참여자 D)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고려인 청소년들의 진로 적응력을 높이는 핵심 내적 자원으로 볼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경쟁적 구조와 언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신뢰함으로써 진로 목표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동기를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진로를 이어가고 있었다.

3) “어려움 없이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못 잡아 올린다.”

연구참여자들은 진로를 이루는 과정에서 노력과 인내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참여자 D는 ‘Без труда не вынешь и рыбку из пруда(노력 없이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⁴⁾’라는 러시아 속담을 알려주었다. 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들은 노력의 가치를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어려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참여자들이 지닌 고려인 공동체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주체적 활동 성향(Kim & Jung, 2025)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빠른 경쟁 구조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형성된 노력 중심의 가치관이 드러나기도 한다. 즉, 진로를 향한 그들의 인내와 근면함은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이 결합된 결과로,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심리적 버팀목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어려움 없이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못 잡아 올린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모든 목표의 이면에는 많은 노력이 있고, 강한 정신력이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알고 실패하더라도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C)

그림 10. 인내와 노력

4) 꺼지지 않는 불씨: 꿈을 향한 열망과 자기표현의 회복

진로는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활동(예: 예술, 스포츠, 기술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형성했다.

4) Без труда не вынешь и рыбку из пруда. 러시아 속담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들어하는 친구를 응원할 때 사용한다.



그림 11. 보석 십자수에 대한 자부심과 열망

이 사진은 내 보석 십자수에 대한 자부심, 내 기술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림에 묘사된 장면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고 싶었다. (참여자 A)

사진들은 스포츠와 활동적인 삶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준다. 나는 목표를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사랑 없이는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참여자 D)

이처럼 고려인 청소년들의 진로 경험은 ‘적응’이 아니라 ‘표현’의 과정이었다. 그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주어진 틀에 맞추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열정과 능력을 드러내며 진로 정체성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자기표현적 진로행동(self-expressive career behavior)으로, 문화적 이중성을 통합하며 주체적으로 진로를 구성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하여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꿈: 내 인생의 이정표’, ‘어려움: 꿈을 가로막는 장벽들’, ‘빛: 그림에도 나아가는 힘’이라는 세 가지 상위주제와 아홉 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고려인 청소년에게 꿈은 단순한 직업적 목표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장치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진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농구, 그림, 만들기와 같은 비언어적 활동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드러낸 자기표현적 진로행동(self-expressive career behavior)과 연결된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청소년기의 정체성 발달 과정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Erikson, 1968).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의 작품과 이야기를 존중하며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은 개인적 적응이나 목표 달성의 차원을 넘어, 정체성을 표현하고 확인받는 상호적 자기표현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진로는 가족·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사회적 매개체로 기능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 경험을 통해 가족과 고려인 친구들과의 정서적 유대와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가 개인적 성취뿐 아니라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며, 진로 경험이 사회적·정서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인 청소년의 다층적 정체성과 혼란을 강조해온 논의(남부현, 김지나, 2017; 박미정, 2015)를 확장하여, 진로 경험이 정체성 확인과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고려인 청소년들의 진로 경험은 다양한 장벽에 의해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한국어 능력이 진로를 이루기 위한 필수 자원으로 인식하며, 참여자들은 집단 활동에서 ‘한국어를 모른다는 점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했다. 이는 한국어 부족이 이주 청소년의 주요 어려움을 지적한 기존 연구(남부현, 박미숙, 2022; 김진원, 송민경, 이슬아, 유명, 2017; 오성배, 서덕희, 2012)와 맥을 일치한다. 특히, 이들은 일상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제한되고, 모국어를 사용하는 또래 및 가족과의 교류가 많아 한국어 노출 자체가 구조적으로 적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는 한국어 사용을 우선시하는 일반 다문화 가정과 구별되는 점으로,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동족 네트워크 내에서 모국어 유지가 강화되며 언어 학습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는 특성이 보고되었다(송영호, 최영미, 2019; 임동선 외, 2021).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원하는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으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은 언어적 조건은 한국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닌 원하는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한국어 부족이 장차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용어 습득이나 동료·고객과의 소통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뒤늦게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 자녀의 경우 학력이 부족하거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변경환, 2025)와 비슷한 맥락이며 이러한 참여자의 진술은 고려인 청소년에게 한국어 장벽이 생활 적응을 넘어 진로 역량 확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참여자들은 시간 압박과 조급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를 넘어, 이주로 인해 출발선이 뒤늦게 형성된 데서 비롯된 문화적 지연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늦은 입국으로 인해 또래 한국인 청소년보다 진로 준비의 출발선이 늦었다고 인식하면서도, 결국 동일한 시기에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조급함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고려인 청소년이 ‘시간적 지연’과 ‘진로 선택 시점의 압축’이라는 특수한 진로 맥락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내·외부 요인에 민감한 시기이자 여러 신체·심리적 변화를 이루는 청소년기에 이주하게 되어 정체성 형성과 안정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이명진, 장유진, 2024)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외에도 일부 참여자들은 부모의 지원 없이는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과 창작 활동에서 아이디어가 사라지면 망할 수 있다는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려인 청소년이 언어·시간·경제적 조건의 중첩된 제약 속에서 진로를 탐색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김지나, 2016), 일반 청소년이 겪는 보편적 어려움보다 제도적 사각지대와 언어적 제약이 결합되면서 그 강도와 영향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고려인 청소년들은 다양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찾고 있었다. 가족과 고려인 친구들은 참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호요인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고려인 청소년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지적하며 가족·동족 공동체가 사실상 유일한 심리·정보 자원으로 작동한다고 보고한다(정상우, 이원선, 2022; 전경숙, 2017). 본 연구에서도 가족·친구의 지지는 고립감과 불안을 완화시키고,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이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승경, 2013)와도 일맥상통한다. 더불어 한국인 또래보다 가족과 고려인 친구들과 같은 일종의 동족 네트워크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한국인 또래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익숙한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족 집단이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참여자들은 자신을 믿는 내적 확신, 좌절을 성장의 조건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 속담을 사용해 “어려움 없이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은, 문화적 가치와 개인적 회복탄력성이 결합된 진로 적응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자기표현을 통해 형성된 자신감과 회복탄력성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으며, Savickas(2002)의 진로구성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진로 적응성과 연결된다. 특히 스스로를 버팀목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고려인 청소년에게 중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노력 중심적 태도는 개인적 성향을 넘어 고려인 공동체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주체적 활동 성향(Kim & Jung, 2025)에 뿌리를 두며, 한국 사회의 경쟁적 환경에서 느끼는 압박과 결합하여 진로 목표를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버팀목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주민의 문화적 가치가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Ponomareva & Sizova(2021)의 논의와도 일치한다.

즉, 고려인 청소년들의 진로 경험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효능감, 관계적 지지를 활용하여 장벽을 헤쳐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고려인 청소년의 학업 지체, 낮은 학업 성취, 미래 불확실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김승경, 2013; 오예카테리나, 2021)에서 나아가, 관계적·심리적 보호요인과 자기표현적 진로행동을 통한 정체적 확인이라는 측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청소년 당사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주관적 불안, 압박감, 관계적 동기 등을 생생하게 드러내어 경험적 자료가

부족한 분야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고려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토보이스 기법을 통해 참여자의 목소리와 시선을 직접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가 주로 구조적 제약을 강조한 데에 비해, 본 연구는 보호요인(가족의 지지, 친구 관계, 자기효능감)을 함께 조명하였다. 고려인 청소년을 단순히 취약 집단으로 규정하는 시각을 넘어, 이들이 지닌 잠재적 자원과 성장 가능성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향후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포토보이스 기반 프로그램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연구결과에 기반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청소년들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 특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한국어 부족이 단순한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넘어, 장차 희망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용어 이해, 자격요건 준비, 동료·고객과의 소통에도 직접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다문화 학생 대상 교육의 지원이 저숙련 기술 습득에 집중되어 있어 단기간만 진행하고, 결국 장기적인 진로개발 지원이나 안정적인 진로를 꾸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양계민, 장윤선, 강희숙, 2021)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직업군별 전문 어휘, 면접 표현,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언어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진로 특화 한국어 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고려인 청소년의 자기표현 중심 진로경험을 반영하여, 자기표현 기반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인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언어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과 같이 비언어적이고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가족과 고려인 친구가 핵심 보호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동족 네트워크를 활용한 멘토링, 부모 교육, 또래 지지 기반 진로동아리 등 관계기반 진로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려인 가정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정책적 보호 체계 확대가 필요하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 기관을 통해 모집된 소수의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한국 거주기간 등 다양한 배경을 반영한 표본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고려인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가족관계, 학교 적응 등 폭넓은 경험을 다루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경험을 통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걸친 포토보이스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발달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의 발달 변화와 보호요인의 지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학 (2018). 국내 고려인 아동의 국제 이주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 광주광역시 고려인 아동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4(2), 61-103. doi:10.17249/CCS.2018.08.24.2.61
- 김민선 (2018).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진로갈등과 진로결정 어려움의 관계: 부정적 진로 기대와 진로 결정 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2), 135-157. doi:10.21509/KJYS.2018.12.25.12.135
- 김병표, 박현주 (2021).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0), 185-213. doi:10.21509/KJYS.2018.12.25.12.135
- 김승경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03.
- 김지나 (2016). **고려인 청소년의 학교 생활을 통한 문화적응 과정 경험 연구: 우즈베키스탄 출신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원, 송민경, 이슬아, 유명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직업훈련에 관한 참여 실행연구: 조선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조선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8(2), 63-99. doi:10.14816/sky.2017.28.2.63
- 김현주, 조혜영 (2017).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5), 201-221. doi:10.22251/jlcci.2017.17.5.201
- 남부현, 김경준 (2018). 중도입국청소년 초기 적응과정에 관한 조선족 부모의 경험과 인식. **한국청소년연구**, 29(2), 5-34. doi:10.14816/sky.2018.29.2.5
- 남부현, 김지나 (2017). 고려인 중도 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지역과 문화**, 4(1), 63-90.
- 남부현, 박미숙 (2022). 고려인 중도 입국 청소년의 생태체계 속 삶의 적응 모습: 지역사회 교사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2), 83-120.
- 남혜경, 이미정 (2016). 한국거주 고려인청년의 문화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인문사회**21, 7(3), 109-125. doi:10.221.43/HSS21.7.3.7
- 류예진, 이원형, 최하림, 연구진, 김민선, 백경민 (2025). 경계에서의 삶: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의 문화 적응과 가족 내 갈등. **미래청소년학회지**, 22(2), 137-158. doi:10.34244/JFOYS.2025.22.2.137
- 문지은, 이지혜, 이상민 (2015). 여자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스트레스: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 연구**, 21(3), 233-255.

- 박계란, 이지민 (2010).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구조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9(6), 981-991. doi:10.5934/kjhe.2010.19.6.981
- 박미정 (2015).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혜, 심혜선, 마담마 (2018). 이주배경 청소년의 눈을 통해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와 방법: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23(2), 283-313. doi:10.13049/kfwa.2018.23.2.7
- 박현수 (2025.7.4.). 고려인 청소년들 ‘한국 학생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연합뉴스**.
- 박현숙 (2023). **고려인 중도 입국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조사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법무부 (2023, 9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 법무부 (2025, 6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 변경환 (2025).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속에서 진로장벽 대처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다문화 기술대안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영호, 최영미 (201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이중언어적응, 사회정체성과 우울. **다문화와 평화**, 13(1), 77-96. doi:10.22446/mnpisk.2019.13.1.004
- 송진영, 배미경 (2015).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비행경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교정복지연구**, 39, 29-58.
- 신난희, 소학섭 (2025). 중도 입국 고려인 청소년 진학·취업 교육의 방향: 고등과정 재학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외한인연구**, 69, 115-145.
- 양계민, 장운선, 강희숙 (2021).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2021 연구보고)**. 수원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인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doi:10.25152/ser.2012.60.2.517
- 오영범 (2023). 국내 교육학 분야의 포토보이스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9), 731-748. doi:10.22251/jlcci.2023.23.9.731
- 오예카테리나 (2021). **고려인동포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 생활에 관한 경험 연구: 경주시 거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영란 (2009). 고등학교의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5(1), 91-106. doi:10.24159/joec.2009.15.1.91
- 이남주, 김민 (2017).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0(1), 141-170. doi:10.14328/MES.2017.3.31.141

- 이명진, 장유진 (2024).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31(4), 117-152. doi:10.21509/KJYS.2024.04.31.4.117
- 이재희, 김기현, 라미영 (2014).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눈을 통해 본 이주 후 초기 적응 경험: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아동복지학**, 45, 103-110.
- 임동선, 김지애, 오수진, 이은진, 조수정, 박원정 (2021).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 사용이 학생 및 부모 요인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30(1), 135-147. doi:10.15724/jslhd.2021.30.1.135
- 전경숙 (201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9(1), 441-473. doi:10.23286/gri.2017.19.1.018
- 정민상, 김영근 (2025).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에서의 또래관계 형성 어려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8(3), 185-211. doi:10.14328/MES.2025.9.30.185
- 정상우, 이원선 (2022).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 개선 방안.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121-148.
- 조미형, 이성욱, 문예술, 김수현 (2024). 중도입국 청소년의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포토보이스 기법 활용. **한국청소년연구**, 35(4), 175-200. doi:10.14816/sky.2024.35.4.175
- 조윤정, 황소리, 오민아 (2018).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4(6), 375-393. doi:10.24159/joec.2018.24.6.375
- 조은희, 오성배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3(5), 449-516. doi:10.24159/joec.2017.23.5.499
- 주혜민 (2023). **청소년쉼터 거주 여고생들의 진로 준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란, 홍지영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9(1), 347-374. doi:10.14816/sky.2018.29.1.347
- 최영진 (2012). 환동해권의 소수민족 정책과 정체성: 재외한인의 사례. **한국민족문화**, 45, 265-298.
-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미래사회복지연구**, 8(2), 125-151. doi:10.22836/kaswpr.2017.8.2.125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doi:10.1037/0003-066x.55.5.469
- Bogdan, R., & Biklen, S. K. (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Pearson.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doi:10.1191/1478088706qp063oa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Vol. 68). Norton.
- Hussey, W. (2006). Slivers of the journey: the use of Photovoice and storytelling to examine female to male transsexuals' experience of health care access. *Journal of homosexuality, 51*(1), 129-158. doi:10.1300/J082v51n01_07
- Kemmis, S., & McTaggart, R. (2005).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Communicative action and the public sphere.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559-603). Sage.
- Kim, H., & Jung, Y. (2025). Formation and Development Features of the Russian-Speaking Koreans Community in South Korea.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ya, 8*, 119-131.
- Liebenberg, L. (2018). Thinking critically about Photovoice: Achieving empowerment and social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17*(1), 1-9. doi:10.1177/1609406918757631
- Padgett, D. K.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역.). 서울: 나남출판. (원저는 1998년에 출판)
- Ponomareva, I., & Sizova, I. (2021). *Cultural Values Of Central Asia Migrants And The Region's Social Development*. In E. Popov, V. Barkhatov, V. D. Pham, & D. Pletnev (Eds.), *Competitiveness and the Development of Socio-Economic Systems*, vol 105. European Proceedings of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pp. 296-302). European Publisher. doi:10.15405/epsbs.2021.04.32
- Savickas, M. L. (2002). *Career construction: A developmental theory of vocational behavior*. In D. Brown (Ed.),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149-205).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Vaughn, L. M., Rojas-Guyler, L., & Howell, B. (2008). "Picturing" health: a photovoice pilot of Latina girls' perceptions of health. *Family & Community Health, 31*(4), 305-316. doi:10.1097/01.FCH.0000336093.39066.e9
- Wang, C., & Burris, M. A.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3), 369-387. doi:10.1177/109019819702400309
- Whyte, W. F., Greenwood, D. J., & Lazes, P. (1991).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Through practice to science in social research. In W. F. Whyte (Ed.),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p. 19-55). Sage. doi:10.4135/9781412985383.n2

ABSTRACT

Dreams in photographs: Exploring career experiences of Koryeoin adolescents through photovoice

Kim, Yupin* · Kim, Seohyun** · Son, Eunsook*** · Kim, Youngkeun****

This study explored the career experiences of Koryeoin adolescents using the photovoice method. Five adolescents in Korea, aged 13 to 18, participated in three sessions where they photographed their dreams, described their meanings, and shared their stories in group discussions. Thematic analysis identified three themes: “Dreams as milestones of life,” “Barriers hindering dreams,” and “Lights that empower resilience.” Dreams served not only as occupational goals but also as means of affirming identity and sustaining relationships, while career development was constrained by language barriers, time pressure, and practical difficulties. Family members, Koryeoin peers, and the adolescents themselves functioned as key protective fact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yeoin adolescents’ career experiences should be understood through identity, relationships, and self-efficacy rather than solely through difficulties, while also demonstrating the usefulness of photovoice for engaging adolescents with limited language proficiency.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context-sensitive career support that attends to Koryeoin adolescents’ layered identities rather than subsuming them under a homogeneous category of multicultural youth.

Key Words: Koryeoin adolescents, photograph, photovoice, career experiences

* M.A.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 & Researcher, Korean Institute for Emotional Transformation and Growth, First author

** M.A.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 & Researcher, Korean Institute for Emotional Transformation and Growth

*** Chairperson, Gimhae Global Youth Cente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 & Director, Korean Institute for Emotional Transformation and Growth, Corresponding author, ykkim@inje.ac.kr